

7. 다음 만화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 ② 지나친 욕심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 ③ 자신의 단점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④ 외양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 나름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8. '바람직한 인터넷 댓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사고 과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고 과정	내용
주 장	바람직하지 못한 댓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 거 1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근 거 2	음란물 유포처럼 댓글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반 론	개인의 자유로운 댓글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 거 1	댓글 규제는 건전한 의견 표명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
근 거 2	댓글 규제는 세대 간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질문안	게시판 댓글란을 유지하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댓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 '학생 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 요>

주제문 : 학생 봉사활동의 올바른 방향

I. 머리말 : 논제의 제시

II. 본 문

1. 문제 실태

가. 점수 채우기식 봉사활동
나. 시간 때우기식 봉사활동
다. 무계획적인 봉사활동
라. 특정 기관에 편중된 봉사활동
마. 물질주의 만연

2. 원인

가. 봉사활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
나. 봉사활동 장소 홍보 부족
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부족
라. 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강화

3. 대책

가. 봉사활동의 의의에 대한 교육 강화
나. 다양한 봉사활동 기관 홍보
다. (가)

III. 맺음말 : 요약 및 제언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로 수정㉠

내용상 중복되므로 '가. 실적 위주의 형식적 봉사활동'으로 통합㉡

주제와 동떨어져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3.대책'으로 이동㉣

'2.원인'을 고려할 때 ㉤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삽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조건에 맞게 이어 쓰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봉 선 화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조건]

- 계절감을 드러낼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제시된 시조의 주제를 유지할 것

- ① 누님이 편지 보며 나를 어찌 떠올릴까.
말썹 많던 아우지만 고향처럼 그림졌지.
오늘도 시냇물은 예전처럼 노래하네.
- ② 살수록 그리워지는 어린 시절 내 고향
날마다 키 재어 보던 동구 밖 느티나무
이제는 갈 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이어.
- ③ 별 하나 나 하나로 깊어가던 여름밤에
모닥불 연기 새로 곱디고운 누님 미소
손톱 끝 꽃물처럼 아련히 남았구나.

- ④ 정 많은 우리 누님 편지를 받자마자 어린 시절 떠올리며 눈물 콧물 쏟으실 걸. 해맑은 별빛 아래 누님 생각 간절하네.
- ⑤ 마당가 드리워진 달빛의 그림자여. 철없던 나를 두고 떠나가신 어머니가. 빛 바랜 기억만이 바람결에 날립니다.

11.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연결이 긴밀한 것은? [1점]

- ① 희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지문, 대사, 해설이다. 지문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는 글이며, 대사는 대화와 독백, 방백으로 나뉜다.
- ②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속한 출산을 저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영화는 책과 문화적인 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 이런 점은 우리의 문화적인 풍토에서 영화와 책이 가지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한편 그에 대한 광고의 양상은 아주 다르다.
- ④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연관성의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 영역을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는 독립성의 욕구이다.
- ⑤ 역사와 소설은 모두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사실대로 객관화·일반화하여 기록하는 것이고, 소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2. <보기>는 어느 학생이 쓴 자기 소개서의 일부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외 펜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창 시절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뉴질랜드와 스위스에 있는 두 명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제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거나 뉴질랜드 문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뉴질랜드의 동전과 지폐를 종류별로 보내 주어 펴 듯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모니카와는 지난 여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했을 때, 나의 손을 잡았던 모니카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세던지 나는 지금도 그 때가 생각납니다.

해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바르지 않으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로 고친다.
- ② ㉡은 문맥상 잘못된 사동 표현이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로 고친다.
- ③ ㉢은 앞 문단의 내용과 뒤에 이어질 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고친다.
- ④ ㉣은 문맥상 선택의 의미이므로 '세든지'로 고친다.
- ⑤ ㉤은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넓어졌습니다.'로 고친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탐구 학습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나도 너만큼 잘 할 수 있다.
 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
 ㄷ. 나는 나대로 할 수 있어.
 ㄹ. 아는 대로 침착하게 대답하면 돼.

- ① 'ㄱ'의 '만큼'은 대명사 '너'에 붙은 것으로 보아 조사야.
- ② 'ㄴ'의 '만큼'은 '생각만큼 잘 안 된다.'의 '만큼'처럼 붙여 써야 해.
- ③ 'ㄷ'의 '대로'는 '꽃은 꽃대로'에서의 '대로'처럼 '따로따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
- ④ 'ㄹ'의 '대로'처럼 '발길 가는 대로'의 '대로'는 모두 앞말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해.
- ⑤ 'ㄴ', 'ㄹ'을 볼 때, '노력할 뿐이야'의 '뿐'은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어.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점]

—<보 기>—

○ 축제가 (㉠)인 교정을 (㉡) 동안 거닐었다.
 ○ 어머니가 아이를 의자에 (㉢), 밥술에 쌀을 (㉣).
 ○ 젓갈을 (㉤) 항아리에 (㉥) 오래 보관하면 좋다.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한참 | 한창 | 안치고 | 안쳤다 | 담가 | 담아 |
| ② | 한참 | 한창 | 안치고 | 안쳤다 | 담가 | 담아 |
| ③ | 한참 | 한참 | 안치고 | 안쳤다 | 담아 | 담가 |
| ④ | 한참 | 한참 | 안치고 | 안쳤다 | 담아 | 담가 |
| ⑤ | 한참 | 한참 | 안치고 | 안쳤다 | 담가 | 담아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줄레줄레 도야지 새끼들이 간다.
 귀밀이 재릿재릿하니 별이 담복 따사로운 거리다.

 잣더미에 까치 오르고 아이 오르고 아지랑이 오르고
 ㉠해바라기 하기 좋을 벗꼭간 마당에
 벗짚같이 누우란 사람들이 둘러서서
 어느 눈 오신 날 눈을 츠고* 쟁긴 듯한 말다툼 소리도 누우라니*

소는 기르매* 지고 조은다.

아 모도들 따사르히 가난하니

* 츠고 : 치우고
 * 누우라니 : 색깔이 누런
 * 기르매 : 길마. 소 등 위에 엮어 짐을 싣는 도구

- 백석, '삼천포' -

(나)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 김현승, '지각(知覺)' -

(다)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구두통에 새벽별 가득 따 담고
 별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하루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들 발아래 짓밟혀 나뉘는
 지난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하늘 숨은 낮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모아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사람들 목숨 닦는다.
 목숨 위에 내려앉은 먼지 닦는다.
 저녁별 가득 든 구두통 메고
 겨울밤 골목길 걸어서 가면
 사람들은 하나씩 별을 안고 돌아가고
 ㉤발자국에 고이는 별바람 소리 따라
 가랑잎 같은 손만 굴러서 간다.

- 정호승, '구두 닦는 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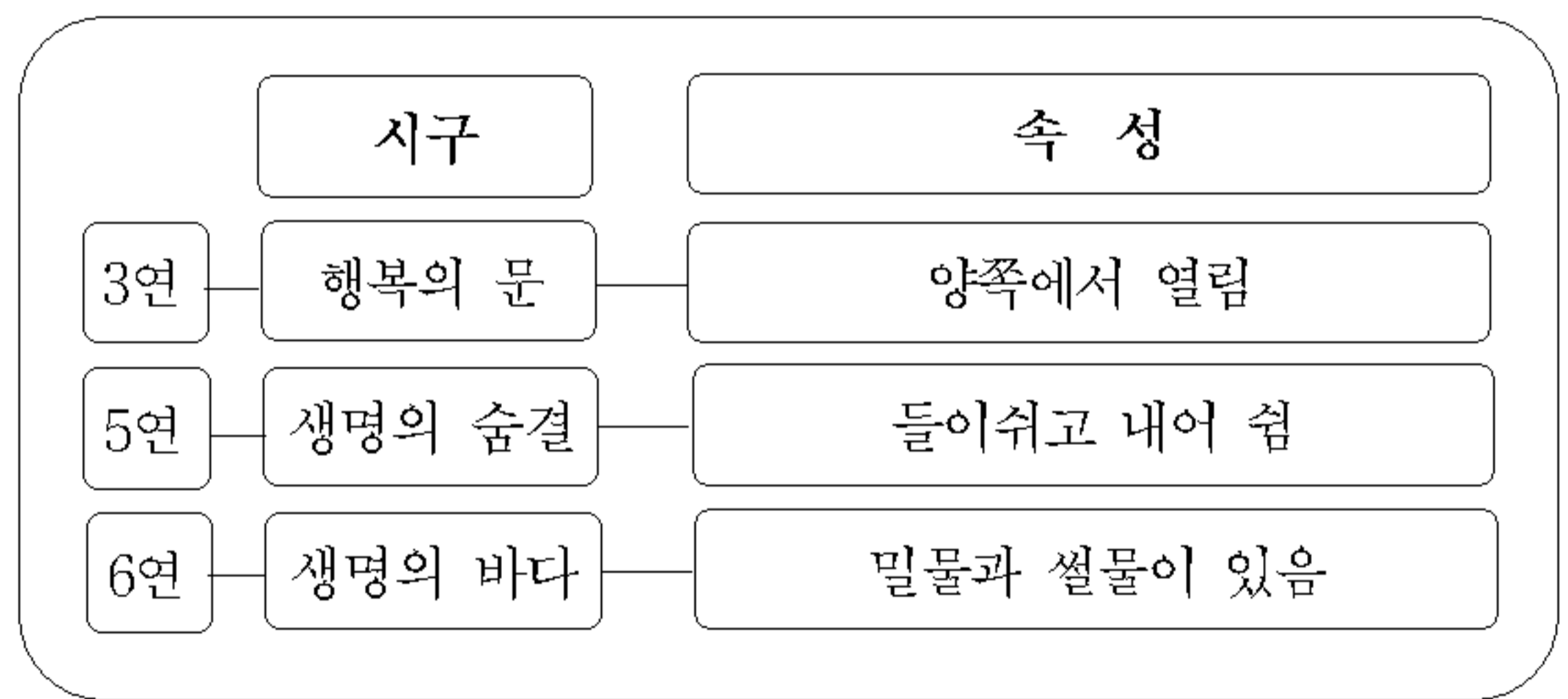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가)와 (나)에는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화자가 관찰한 대상의 인상이 그려져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
- ④ (가)~(다)에는 힘겨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16.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되는 소재를 배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의태어를 구사하여 현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어휘와 음운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토속적인 어휘를 구사하여 향토적 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다.

17. (나)에 표현된 중요 시구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내면화 (㉠)

- ① 불행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 ② 불행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 ③ 행복과 불행 모두 삶의 소중한 일부로 수용해야 한다.
- ④ 내일의 삶보다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이 행복한 삶이다.
- ⑤ 인생에서 행복의 순간을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중요하다.

18. (다)의 '구두'와 '별'이 갖는 시적 의미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두	별
① 세속적 목적	종교적 목적
② 현실적 표상	희망적 표상
③ 극복의 대상	화합의 대상
④ 더러운 사물	깨끗한 사물
⑤ 개인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19. ㉠~㉣ 중, <보기>의 ㉠와 유사한 것은?

<보 기>

○ 구조적 역설에 대한 설명
구조적 역설은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작품 전반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이다. 이규보의 <경설(鏡說)>을 보면 작가는 '거울'에 대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용을 읽어 보면 그 뜻이 드러난다.

○ 구조적 역설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작품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만일 한번 보기만 하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야 말 것이니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걸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 이규보, '경설(鏡說)'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50년대 후반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성과 엄숙성에 반대하여 ㉠팝아트(pop art)가 시작되었다. 팝아트는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시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팝송이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 대중에게 파급시켰듯이, 팝아트도 그렇게 대중에게 다가간 예술이다.

팝아트는 텔레비전, 상품 광고, 쇼윈도, 교통 표지판 등 복합적이고 일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만화 속의 주인공, 대중 스타 등 평범한 소재까지도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그 결과 팝아트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불식시켰다. 이런 점에서 팝아트는 당시의 현실을 미술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팝아트는 다다이즘에서 발원한 반(反)예술 정신을 미학화시켰을 뿐, 상품 미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 문화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팝아트는 직물 무늬 디자인에 영향을 끼쳤다. 목 주위로 돌아가면서 그려진 구슬 무늬, 벨트가 아니면서 벨트처럼 보이는 무늬, 뒤에서 열리지만 마치 앞에 달린 것처럼 찍힌 지퍼 무늬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무늬들은 앤디 워홀이 실크스크린으로 찍은 캠벨 수프 깡통, 실제 빨래집게를 크게 확대한 올덴버그의 작품이나, 존스가 그린 성조기처럼 평범한 사물을 확대하거나 그대로 옮겨 그린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한편 ㉡옵아트(optical art)는 순수한 시각적 미술을 표방하며 팝아트보다 다소 늦은 1960년대에 등장했다. 옵아트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옵아트란 아무런 의미도 담지 않은 순수한 추상미술을 추구하기 위해 탄생된 미술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가장 단순한 선, 형태, 명도 대비, 색, 점들을 나란히 놓아서 눈이 어지러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옵아트와 색과 형태의 정적인 힘을 변화시켜 동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시각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옵아트는 기존의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던 일반적인 미술이나 구성주의적 추상 미술과는 달리, 사상이나 정서와는 무관하게 원근법상의 착시, 색채의 장력(張力)*을 통하여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했다. 그리고 빛이나 색, 또는 형태를 통하여 3차원적인 다이나믹한 움직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옵아트는 지나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문과학보다는 자연과학에 더 가까운 예술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옵아트 옹호자들은 옵아트와 시각적 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옵아트는 특히 직물의 무늬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줄 무늬나 체크 무늬 등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디자인 가운데는 옵아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상당수 있다. 한편 옵아트는 사고와 정서가 배제된 계산된 예술이고 오로지 착시를 유도하여 수수께끼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장력(張力) : 당기거나 당겨지는 힘

20. 위 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1점]

- ① 팝아트의 소재는 무엇인가?
② 팝아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③ 옵아트는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가?
④ 옵아트의 대표적 예술가는 누구인가?
⑤ 옵아트는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가?

21. 위 글의 내용 전개상 특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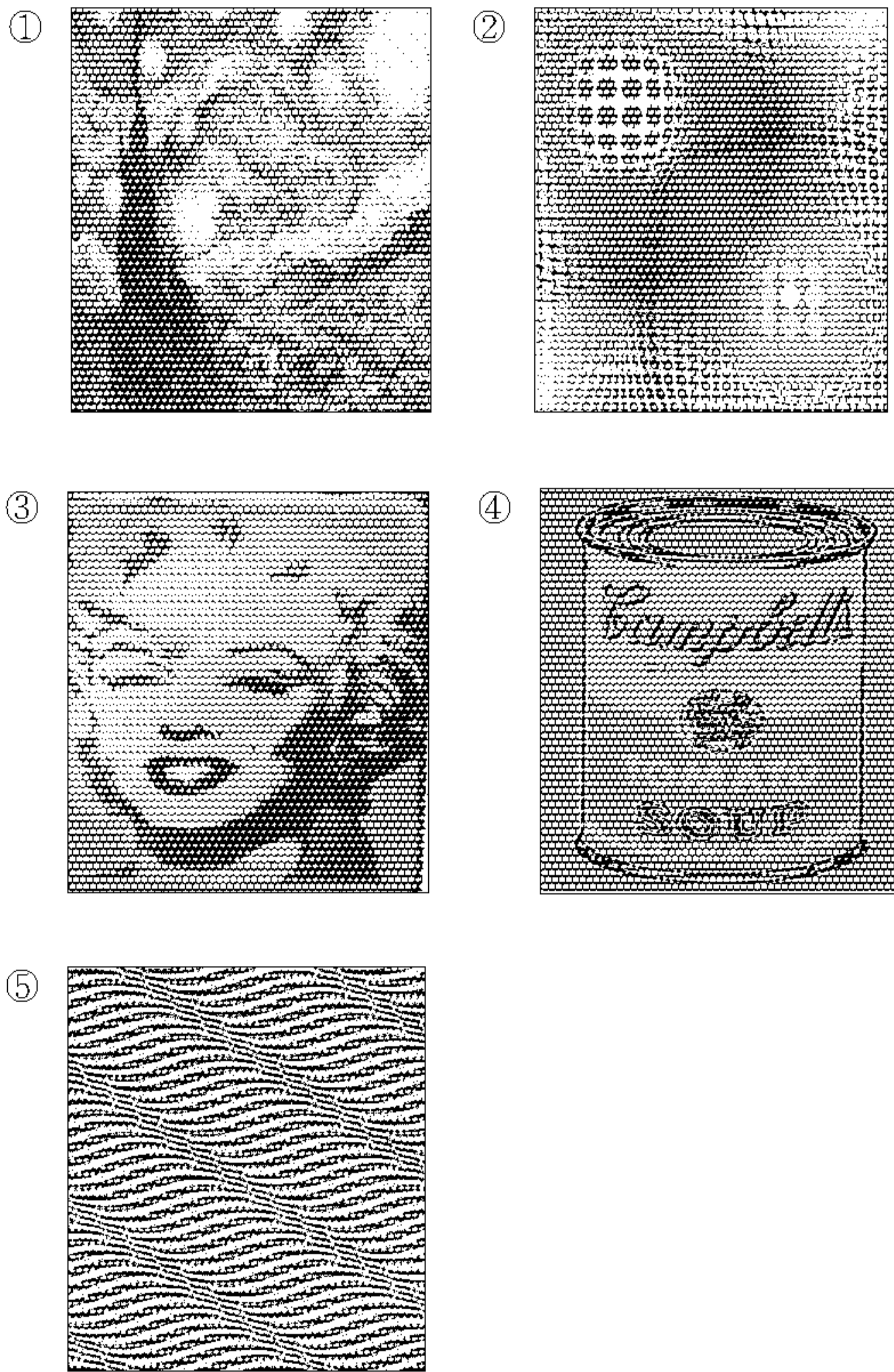
㉠.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대상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도 전망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2.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업적 속성을 옹호했다.
- ② 다양한 감각을 활용했다.
- ③ 기존의 예술 경향에서 탈피했다.
- ④ 표현보다는 내재적 의미에 주목했다.
- ⑤ 과학적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23. 위 글의 중심 화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24~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4' -

(나)

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들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뒀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산천(山川)
 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
 가.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아버지는 휘파람으로 애마를 불러, 아니다. 술집 바깥에 세워 두
 었던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곤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점퍼 주
 머니에 손을 넣고 등에 기대야 했다. 그 등은 알맞게 따뜻했고 어
 느 때보다 넓고 관대하게 느껴졌다.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부지!”하고 불
 렸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아버지는 그날 마신 술로 기분이 좋았다.

“짜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
 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
 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찌익찌익’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나
 는 얼씨구, 내 말이 먹혀드는구나 싶어 주마가편(走馬加鞭)격으로
 말을 쏟아 냈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2개월이 넘었습니다. 어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
 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
 로 말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
 를 세워 두고는 신작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
 줌을 누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
 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
 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
 령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느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래로 보이더냐?”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면서 말씀하셨다.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
 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아버지의 나이가 사십대 초입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
 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다.
- ③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25.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의 화자 :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군요.
- ② (나)의 화자 :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 ③ (가)의 화자 : 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당신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오.
- ④ (나)의 화자 : 아직 임을 만나서는 안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리움을 주체하지 못해 하는 일이라오.
- ⑤ (가)의 화자 : 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만 쌓여 가네요.

26. ㉠과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의 마음을 화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상징하고 있다.
- ③ ㉠과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고 있다.
- ④ ㉠과 ㉡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긍정적 분위기를, ㉡은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7. (다)의 글쓴이가 아버지에게 <보기>와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아버님,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문득 아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어린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 아버님께서서는 뼈 있는 가르침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큰 가르침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자만심을 제 스스로 가슴 깊이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느끼는 이 못난 자식은 그때 아버님을 매정하게만 생각했었지요.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아버님의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버님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밤은 유난히 그 옛날의 아버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다)를 한 편의 영상물로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 역에게는 어투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주문한다.
- ② 시골의 달밤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③ 어린 '나'의 배역에게는 자신감에 찬 표정 연기도 주문한다.
- ④ 어린 시절 모습을 '나'의 중년 모습과 오버랩 기법으로 나타낸다.
- ⑤ '아버지'는 사려 깊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로 배역을 설정한다.

29.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 ①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깨우쳐 주기 위해
- ② 세상살이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 ③ 꿈을 갖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
- ④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
- ⑤ 화려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우치기 위해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가 된 이 도령이 춘향에게 자기 수청도 거절할 것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자 춘향은 수의사또를 '명관'으로, 자신의 절개가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청송 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로 빗대어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대상에 투사하여 표현할 내용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때 표현 대상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무조건 투사하지는 않는다. 언어 공동체 안에서 대상에 대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념을 활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대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통해 표현할 대상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여 자신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투사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상대방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줄 때에 [㉡]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 하면서 받는다. 이러한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어법 중의 하나인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 겸양의 격률이란 화자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도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임금이 스스로를 낮춰 '과인(寡人)'이라고 하는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어법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한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선인들은 완곡 어법(婉曲語法)을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완곡 어법이란, 대상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말하기 방식이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기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려 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이다. 이는 다시 '호랑이'를 '산신령', '꽃', '영감'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대상의 신성성이나 존경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 천연두를 '마마', '손님'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불길함을 이유로 특정한 단어를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버지는 '춘부장'으로, 상대방의 어머니는 '자당'이라고 호칭했다. 그밖에 완곡 어법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피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부드럽게 유지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구급차에서 '비키시오.' 대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상과 표현 방식은 과거의 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언어 생활에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선인들의 발상과 표현 방식을 익혀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화적 능력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말은 발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② 우리말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③ 우리 조상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 논리성을 가장 중시했다.
- ④ 우리말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 ⑤ 우리 조상들은 대상에 가치를 부여해 돌려 말하기도 했다.

31.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의 예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순이는 영수를 본 순간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 ② 바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그를 모두 부러워했다.
- ③ 우리 조상들은 밤나무가 많은 동네를 밤골이라고 불렀다.
- ④ 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 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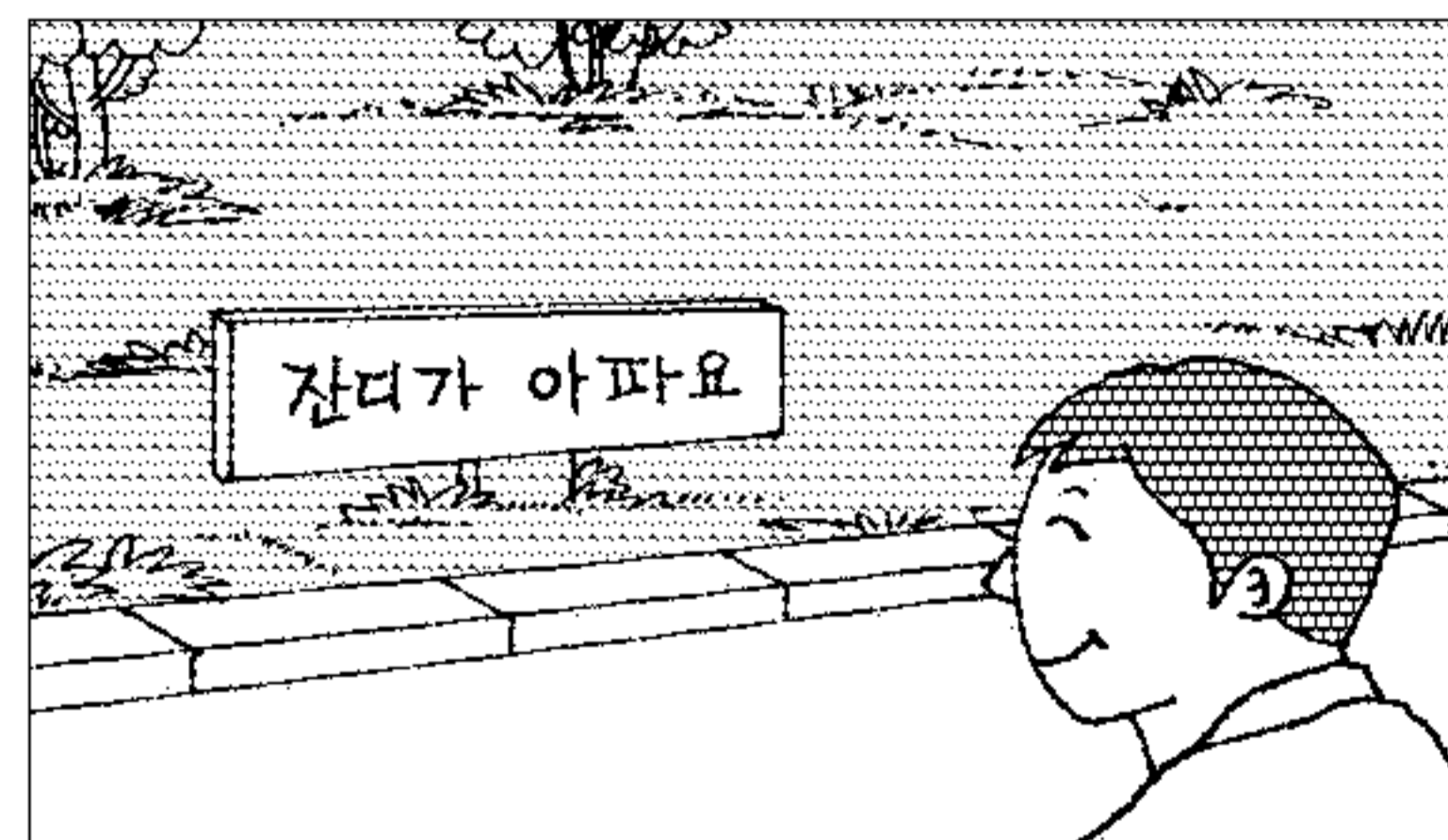
32. ㉡에 비추어 볼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 :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 : 음, 포장 하나에도 사랑이 담겼네요.
- ② ㉢ : 작은 정성의 표현이니 받아 주세요.
㉣ : 변변찮은 저를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 ③ ㉢ : 정성껏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 주세요.
㉣ : 이거 받아도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 ④ ㉢ : 당신을 위한 저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 :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두겠습니다.
- ⑤ ㉢ :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 당신이 주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33. ㉤에 내재된 심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말로는 천당도 짓는다.
- ② 말이 씨가 되는 법이다.
- ③ 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 ④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 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34. 위 글을 통해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심리를 대상에 투사한 표현이다.
- ② 대상의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 ③ 청유의 뜻을 직설적으로 전달한 표현이다.
- ④ 예의를 갖추기 위해 사용한 언어 표현이다.
-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수(海水)를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3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면으로부터 수심 200m까지는 혼합층대, 200~1,000m 사이는 수온약층대, 그리고 1,000m 이상을 심해층대라고 하는데 그 분포 깊이는 대략적인 것으로 위도에 따라 변화가 많다. 이 중에서 심해층대는 전체 해양의 80%를 차지하며, 수심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 염도 및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심해층대는 아주 느린 속도로 전 대양을 이동한다.

먼저 심해층대에 있는 심층해수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열과 염분은 물의 밀도를 변화시킨다. 해양 중에서 차고 염분 함유량이 많은 지역의 해수는 밀도가 높아져 하강 현상이 일어나며, 반면에 따뜻하고 염분이 적은 지역의 해수는 밀도가 낮아져 용승(湧昇)* 작용이 일어난다.

지구의 해양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강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북대서양 지역으로 래브라도 반도 지역과 그린란드 지역이다. 이곳의 차가운 공기와 빙하는 해수면을 급격히 냉각시켜 해수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거기에다 해수에 포함된 물이 얼면서 얼음덩어리가 커질수록 해수에서 순수한 물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해수에 포함된 염분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차가운 북쪽의 공기에 의해 밀도가 높아진 해수는 심해층대로 가라앉게 된다. 무거워진 해수는 수심 200m에서 최고 4,000m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 심해층대를 형성하게 된다.

북대서양에 위치한 래브라도 반도의 차가운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으면 혼합층대에 빈자리가 생기고, 카리브해에서 열대성 바람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은 따뜻한 해류가 이동하여 이곳을 채운다. 그리고 래브라도 반도에서 생성된 심층해수는 대서양의 심해층대를 천천히 이동하여 남극해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남극에서 생성되어 하강하는 심층해수와 합류하여 인도양 또는 태평양까지 이동한다. 그린란드에서 하강한 해수가 남극해에 도달할 때까지는 약 2000년이 걸리며, 남극해를 거쳐서 태평양 또는 인도양에 들어가면서 하루에 1cm 정도의 속도로 상승하여 표층에 도달하기까지 2000년 정도 걸린다. 그린란드와 남극해에서 하강하는 해수의 양은 1초에 약 40메가톤(4,000만톤)이 되는 엄청난 양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으로 인해 심층해수가 인도양 또는 태평양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되고 그 힘으로 표층으로 상승한다. 표층에 도달한 해수는 전 대양으로 이동하며 이중 일부는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 심층해수가 된다.

이와 같이 표층수가 온도와 밀도 차이에 의하여 아래로 하강하거나 심해층대의 해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심층대순환의 원리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해류 순환의 원리는 한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작은 해류의 순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거대한 해류의 순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조각들을 합쳐서 지구의 해류 순환 모형을 완성해 가고 있다.

* 용승(湧昇) : 해양에서 연직운동(鉛直運動) 때문에 하층의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심해층대에서는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이 낮다.
- ② 그린란드 지역에서는 해수의 밀도가 낮아진다.
- ③ 해수의 대부분은 수심 1,000m 이내에 존재한다.
- ④ 해류 순환의 속도는 느리지만 점차 빨라지고 있다.
- ⑤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으면 그 자리로 따뜻한 해류가 이동한다.

36. [A]를 바탕으로 해수의 순환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해수의 하강 → 인도양 → 남극해 → 해수의 용승 → 북대서양
- ② 해수의 하강 → 남극해 → 인도양 → 해수의 용승 → 북대서양
- ③ 해수의 용승 → 남극해 → 태평양 → 해수의 하강 → 북대서양
- ④ 해수의 용승 → 태평양 → 남극해 → 해수의 하강 → 북대서양
- ⑤ 해수의 하강 → 태평양 → 남극해 → 해수의 용승 → 북대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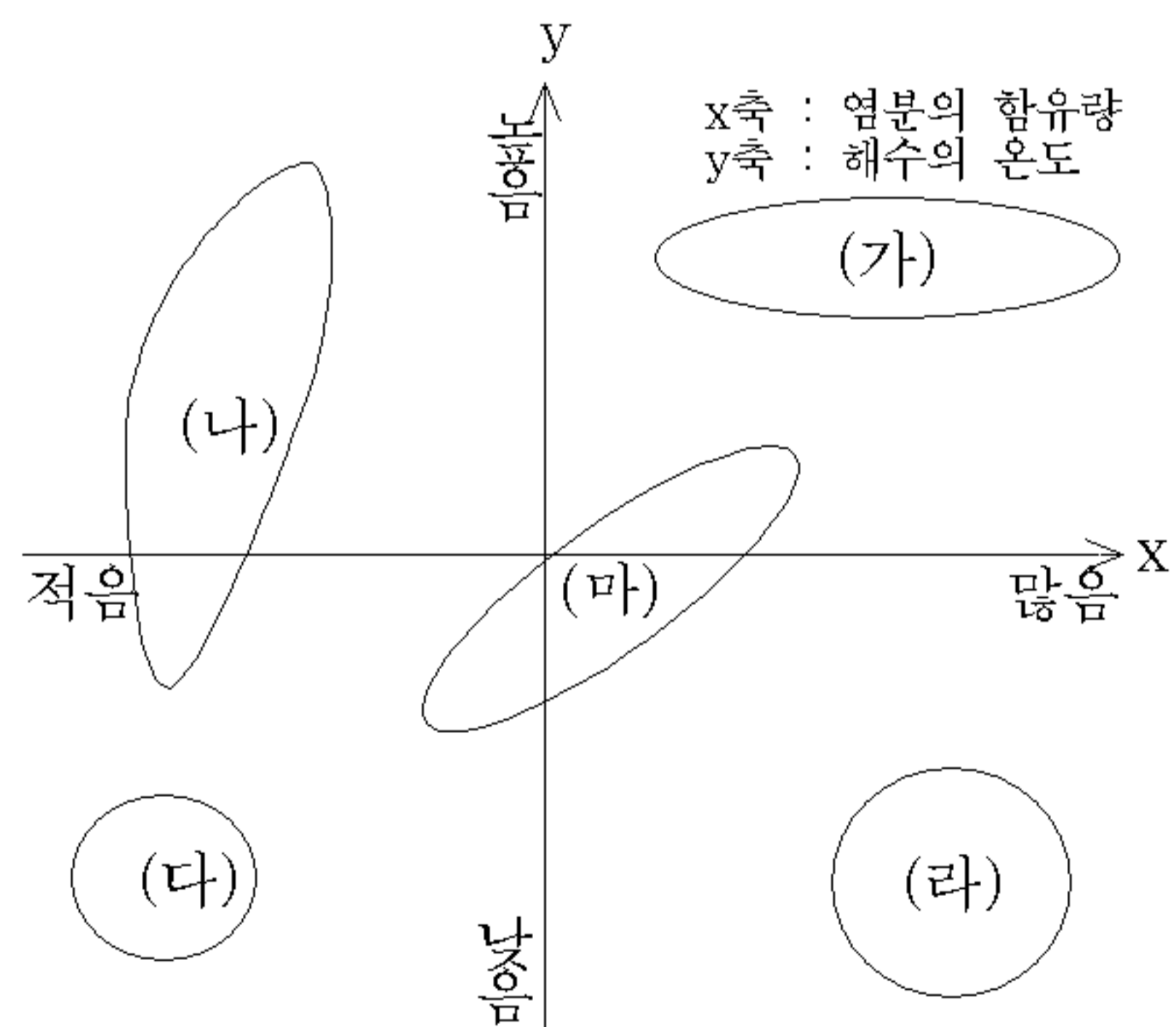
37.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해수의 심층 순환은 저위도 지역의 남은 열을, 열이 부족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저위도의 열을 상당 부분 제거해 주고, 고위도에 열을 공급해 줌으로써 각 지역의 온도가 극한으로 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 만일 이러한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기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 ① 북극의 빙하는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군.
- ② 해수의 염분 밀도와 지구 기후와는 연관이 있군.
- ③ 적도의 해수가 고위도 지역 해수의 온도를 높였군.
- ④ 남극해의 심층 해수가 흘러 적도 지역의 열을 식혔군.
- ⑤ 지구의 일정한 기온이 심층 해수의 이동 속도를 유지시키는군.

38.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 중 심층해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구의 응원 소리와 자신들의 위협음 속에 두 마리의 개는 엇치락뒤치락 실력을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싸움을 계속했다.

논바다의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갔다. 베어 놓은 벼집은 말할 것도 없고 개들이 뒹굴어 들어간 데는 아직도 낮이 가지 않은 벼집들이 연이어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쓰러져 나갔다. 싸움이 좀처럼 끝나지를 않았다. 실력의 우열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누렁이를 타누르고 있을 때 보면 베스 놈의 허리 힘이 조금은 나은 듯싶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었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다시 누렁이 놈이 베스의 배를 타고 올라와 목덜미를 물어뜯곤 했다.

하지만 놈들의 싸움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었다. 드디어 어느 쪽인지 비명을 울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자 석구와 금옥은 서로 한순간 똑같이 긴장하며 얼굴을 마주 건너다보았다. 아직은 어느 쪽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순간이었다. 놈들이 이내 둘로 떨어져 나갔다. 한 놈이 먼저 몸을 빼내어 뒷가랑이 사이로 꼬리를 찰싹 붙인 채 날 살려라 허겁지겁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녀석도 이제 기운이 다한 듯 몇 발 짹짹 더 놈을 쫓는 시늉 끝에 이내 그 자리에 우뚝 몸을 멈춰 서 버린 것이었다. 싸움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그 때였다.

“나가! 죽어! 이 바보, 겁쟁이 새끼야!”

이 때까지 계속 목이 메어라 누렁이의 기세를 돋워 올리던 금옥이 이번에는 또 다른 식으로 갑자기 발작을 시작했다. 먼저 꼬리를 사리고 풍무니를 베어 달아난 놈이 다름 아닌 금옥이네 누렁이 쪽인 때문이었다.

누렁이 놈은 이제 아닌게아니라 나이를 너무 먹어 기력이 달리기 시작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직접 거들진 않았지만 한창 원기가 왕성한 베스 놈 뒤에 메리 년이 버티고 있어 쥐 놈의 투지를 북돋워 준 것인가. 어쨌거나 이 날 싸움에서 먼저 비명을 울리고 뺨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은 금옥이네 누렁이 쪽이었다.

“저 멍충이, 병신 같은 놈! 어서 나가 죽어! 그대로 그냥 어디로 나가 싹 뒹져 없어지란 말야!”

분을 못 참은 금옥이 계속 그 누렁이를 향해 악에 반친 욕설을 퍼부어 대고 있었다. 그러다간 제간에도 몹시 미안하고 분한 듯 아직 건너편 언덕에서 차마 더 달아나질 못하고 멍하니 이쪽을 건너다보고 서 있는 누렁이 놈을 향해 그 어느 날의 석구처럼 마구 돌팔매질까지 쏘아붙였다.

“저 병신, 천치 같은 놈! 호랑이나 물어 갈 놈아! 지금 어서 내 눈앞에서 싹.....”

그러다 금옥은 어느 순간 자신이 베어 놓은 벼집 위로 몸을 펴 싹 주저앉히며 어린애처럼 느닷없이, 그 옛날 어린 초등학교 시절처럼 제풀에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하고 보니 석구는 이제 싸움에 이기고 난 대견스런 베스 놈을 추어 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누렁이를 거꾸러뜨린 기분에 으쓱해질 여유마저 없었다.

아니, 사실 이제는 그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마당에 그는 느닷없이 잔뜩 맥이 풀리고 만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풀이 죽은 누렁이를 저주하는 소리들이, 실은 그녀 자신을 향한 매질처럼 자신까지 웬지 마음이 아프고 언짢았다.

“저 놈을 이제 어째야지, 응? 저 못난이, 병신 새끼를!”

계속되는 원망과 자책 속에 금옥이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희한하게 눈물까지 짜고 있었다. 석구는 그 모습에 그녀가 몹시 측은하고 애뜻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 그는 마침내 그런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금옥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역시 자신도 뜻을 잘 알 수 없는 소리로 은근히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 내 금옥이 속 다 안다. 울긴 바보같이 왜 울어. 누가 정말 누렁이 쫓아내라 할까 봐서?”

말하는 그의 손이 어느 새 금옥의 어깨 위에 닿아 있었다. 금옥은 석구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이래로 그녀에게선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깨 위에 닿아 있는 석구의 손길도 얼핏 비켜 치우려 하지 않았다. 녀이 [A] 나간 사람처럼 그 앞에 젖은 눈길도 잊고 계속 멍청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느 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다. 석구는 그게 웬지 더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주변 없음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은 자기 쪽에서 뭐라고든 말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만 같았다.

“자, 이제 눈물 그치고 일어나라구. 해가 많이 기울었잖아. 이 눈 배미 하나라도 해전에 다 베어 내려면 이제 그만 일어나서 서둘러야 한단 말야. 개새끼들 통해 흐트러진 것도 추려야 하구.”

석구는 이제 금옥의 겨드랑이까지 겨 일으키려 하면서 까담 없이 목이 메어 가고 있었다. 금옥은 그제서야 간신히 정신이 좀 돌아온 듯했다.

“자, 어서. 이제 그까짓 개 새끼들에겐 신경쓰지 말구. 글썽 시시한 개짐승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뭘 그리 속상해 하고 그래. 나도 낮을 가져 왔으니까 같이 도와줄게. 응, 어서!”

하지만 금옥은 여전히 몸을 일으키려는 기색이 안 보였다. 할 수 없었다. 석구는 드디어 자신이 먼저 낮을 찾아 들고 논 가운데로 스택스적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옥은 역시 그러는 석구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냥 그대로 몸을 풀고 앉은 채 곰곰이 석구의 거동만 바라보고 있었다.

건너편 산기슭에선 누렁이 놈이 좀전의 적수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사람들의 동정에만 낮이 팔려 어슬렁어슬렁 이따금 아쉬운 눈초리를 건네 오곤 했다.

㉠어디선가 철 늦은 장끼 울음 소리가 그 느긋한 가을 산골의 정적 속으로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메아리쳐 오고 있었다.

- 이청준, '그 가을의 내력' -

3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사회자 : 바쁘신 가운데도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작품 창작 의도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작 가 : _____

- ①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 ②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점점 각박해져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 ③ 내면에 잠재된 경쟁심 때문에 갈수록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 ④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 ⑤ 사라져 가는 전통적 정서를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 ① 사건의 인과 관계가 분명해졌다.
- ② 사건의 전개 속도가 좀더 빨라졌다.
- ③ 금옥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④ 석구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간의 서로에 대한 태도가 좀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40. 위 글을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한 것은?

〈보 기〉

문학 감상은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만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 해석의 주체로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확장하고 수정하면서, 작품의 의미 또한 새롭게 생성시켜 나간다.

- 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간 관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내면적으로 미성숙한 두 인물이 개싸움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③ 남녀를 엄격히 구별하는 관습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호감이 가는 친구를 오히려 못살게 구는 학생이 읽으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공간적 배경이 작가가 살았던 실제 고향 분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41.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석구의 손이 어느새 내 어깨 위에 닿아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보려 입술을 들쭉이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막고 있는 듯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이래 남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보기는 처음이었다. 내 어깨 위에는 여전히 따스한 석구의 손바닥이 얹혀 있었다. 석구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나는 이제 석구의 마음을 알 것만 같았다. 나보다 더 안타까울 석구의 마음이 어깨 위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42. 위 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금옥이는 석구의 친절에 감지덕지(感之德之)하고 있군.
- ② 싸움에서 이긴 베스는 의기양양(意氣揚揚)한 모습이겠군.
- ③ 누렁이와 베스의 싸움이 처음에는 백중지세(伯仲之勢)였군.
- ④ 석구는 권토중래(捲土重來)하더니 결국 개싸움에서 승리했군.
- ⑤ 누렁이가 싸움에 진 후 전전공공(戰戰兢兢)하는 모습이 불쌍하군.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표현을 통해 감동의 여운을 지속시킨다.
-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③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갈등 해소를 예고하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 ⑤ 상징적 상황을 설정하여 인물이 취할 다음 행동을 암시한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선녀 숙영은 선군과 천정배필이다. 두 사람은 가연(佳緣)을 맺고 한시도 떨어지지 못한다. 선군이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숙영을 잊지 못해 밤에 돌아오기를 거듭한다. 시아버지인 백공은 며느리 방에서 사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의심하고 매월을 시켜 감시하게 하는데, 매월은 숙영남자가 부정하다고 모함한다.

이에 시아버지 백상군은 노기가 더욱 충천해서 비복을 호령하여 남자를 결박하라고 명하니, 비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몸을 묶고, 머리를 산발해서 뜰 아래 꿰어 앉게 했다. 단정하고 우아하던 남자가 일시에 더러운 죄인으로 확대받는 이 광경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었다.

“네 죄상은 만 번 죽여도 아깝지 않으니, 너와 간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숙영남자가 대답하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하자, 시아버지는 비복들을 시켜서 불 때까지 매질하라고 엄명하였다. 사정없이 때리는 비복들의 매를 맞는 남자의 눈같이 흰 살결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남자는 악형의 고통을 참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저번에 남군이 길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에 두 번, 삼십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는 심정으로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기에, 제가 한사코 잘 말해서 도로 보낸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나 제 어린 소견으로는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겁을 내고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더니, 조물(造物)이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런 썩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지금 와서는 낡은 변명같이 되었습니다마는 구만리 명천(明天)은 소소히 살피 아시오니 아버님께서는 그런 사실과 저의 정상을 살피주옵소서.”

그러나 고집불통인 시아버지 백공은 점점 더 노해서 비복을 독려하여 혹독한 매질을 가하였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아아, 하늘은 무죄한 이내 몸을 굶어 살피소서, 뼈 속 깊이 사무친 이 내 한을 뉘라서 풀어주겠습니까?”

하고 엎어지더니 기절하고 말았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참상을 보고 울면서 영감에게,

“옛말에 이르기를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지 못한다 하였는데 영감이 사실도 잘 모르시고 백옥같이 티없는 정절한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로 매를 치시니, 자부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대하시겠습니까?”

하고 뜰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남자를 안고 대성통곡하였다.

“너의 송백 같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

이에 남자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애절한 음성으로, “옛말에도 음행의 소문은 씻기 어렵다 하운데, 동해물을 기울여도 씻지 못할 이런 누명을 쓰고 제가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시어머니 정씨가 남자를 가엾이 여기고 위로하였으나, 남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옥비녀를 빼어들고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하늘은 굶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간통한 일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에 박히고, 애매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옥비녀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혔다. 그것을 본 시아버지 백공은 비로소 대경실색하고 신기히 여기며 남자의 억울함을 알았다.

(중 략)

선군이 비로소 목을 놓아 운 뒤에, 다시 부모 앞으로 나와서 숙영남자가 참혹하게 죽은 곡절을 물었다. 부모가 대답을 못하고 흐느껴 울다가, 이윽고 부친이

“네가 상경한 지 오륙 일 후에 남자의 기척이 없기로, 우리가 이상히 여기고 제 방에 가보니 저런 처참한 모습이라 깜짝 놀라서 그 곡절을 알려고 애썼으나 아직도 자세한 곡절은 모르고 있다. 다만 추측건대, 어떤 놈이 네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밤중에 침입해서 겁탈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또 염습을 하려고 칼을 빼려해도 빠지지 않고, 시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너 오기만 기다리게 되었다. 이런 불행을 네가 알면 필경 병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미리 임진사의 딸과 정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네가 이 같은 불행을 알기 전에 숙녀를 얻어 새 정을 붙이면 불행이 좀 위로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너도 기왕 당한 불행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서 염습해서 장례를 잘 지낼 것이나 생각하라.”

선군이 이 말을 듣고, 뉘를 잃고 망연해 있다가 다시 남자의 빈소로 가서 방성통곡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하여 집안의 모든 남녀 비복을 일시에 결박하여 뜰에 꿰어 앉히고 보니, 그 중에 매월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로 들어가서 이불을 벗기고 보니, 남자의 용모와 전신이 완전히 산사람 같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선군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왔으니,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지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서 남자의 원혼을 위로하겠다.”

하고 칼을 잡아 빼니, 가볍게 쑥 빠졌다. 그와 동시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 뒤에 또 다른 파랑새가 또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또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서야 선군이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분격하여 형구를 갖추고 모든 비복을 차례로 문초하였다. 그러나 죄가 없고, 또 비밀도 모르는 비복들은 죽을망정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으랴. 매월을 끌어내다가 문초하였으나 간악하고 모진 매월은 좀체로 제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가 백장(百杖)에 이르자, 철석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랴. 모진 매월도 하는 수 없이 빌면서, 숙영남자가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자만 총애하는 질투로,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런 간계로 남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리이리 하였다는 경과를 사실대로 자백하였다.

선군은 또 공모한 불량소년 둘이도 잡아다 문초하여,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매수되어서 숙영남자의 방에 드나드는 간부처럼 광대노릇을 해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는데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에잇 죽일 연놈들!”

선군이 대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칼에 베고 남자의 시신 앞에서 ㉠제문(祭文)을 외었다.

-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

44. 위 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보기>와 같은 구상을 했다고 할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인가?
 - 백상군이 남자를 의심함 ㉠
 - 숙영남자에게 악형을 가함 ㉡
 - 숙영은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 옥비녀가 섬돌에 박힘 ㉢
 - 시신에 박힌 칼이 빠지지 않음
 -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 선군이 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함 ㉣
 - 파랑새를 통해 범인을 밝히게 함
 - 남자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 매월을 문초한 후 죽임 ㉤
 - 제문을 지어 위로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흐름이 대화 위주로 드러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과 개입이 드러나 있다.
- ③ 문장이 낭송하기 좋게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 ⑤ 사건 해결의 방식이 전기성(傳奇性)을 띠고 있다.

46.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숙영남자의 언행으로 볼 때 목숨보다 정절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
- ② 선군이 매월을 응징하는 장면에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
- ③ 백상군이 아들의 재혼을 서두르는 장면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엿볼 수 있어.
- ④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대해 준 것에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
- ⑤ 남자가 자신의 불행을 하늘에 하소연하는 모습에서 남자의 절박한 심리가 엿보여.

47. <보기>는 ㉠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아아! 슬프다. 숙녀가 참변을 당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없지 않은 일일지나 ㉠남자가 그런 경우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남자의 작은 실수가 끔찍한 모함을 불러일으켰으니 ㉢남자같이 원통하고 원통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리오. 아아 슬프다. ㉣이것이 모두 나의 불찰에서 생긴 불행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오늘 남자의 원수는 갚았거니와, 한 번 죽은 남자를 어디 가서 다시 만나 보리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실행할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더욱이 개인 정보 유출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금융권, 증권사, 전자 정부 등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킹과 관련하여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공인인증서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웹 브라우저*를 연결해주는 연결 프로그램의 취약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 사이트에서 “다음 발급자가 서명하고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연결프로그램이다. 이 창에서 “예”라고 답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것은 웹 브라우저와 특정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보안에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보안에 취약점이 생기면 공격자가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

㉠공격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내 컴퓨터 공간에 인터넷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자료를 올리거나 타인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자신의 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자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 컴퓨터 영역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실행하는 동안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외부자료를 내부 자료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응용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주는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외부에서 내 컴퓨터 영역의 자료로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 인터넷을 실행할 때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살펴보자.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고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특정 사이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연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공격자의 악성 스크립트(script)*가 사용자 컴퓨터의 웹 페이지에 삽입된다. 사용자는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됐다는 것을 모른 채 웹 페이지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된다. 이 때, 악성 스크립트는 연결 프로그램의 보안 수준을 낮추어 내 컴퓨터 영역의 자료를 원격 서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결과 사용자의 컴퓨터는 원격의 공격자 서버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된다.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실행할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안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잘 읽어보고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보안 의식이 필요하다.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사이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
 * 브라우저 :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 스크립트 : 컴퓨터 프로세서나 컴파일러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번역되고 수행되는 명령문의 집합.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공격자는 연결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 ② 공인인증서의 문제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 ③ 인터넷 실행시 연결 프로그램의 설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연결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를 묻는다.
 - ⑤ 인터넷 실행시 사용자의 컴퓨터에 외부 자료 처리 공간이 생긴다.

49. <보기>의 입장에서 ㉠에 대해 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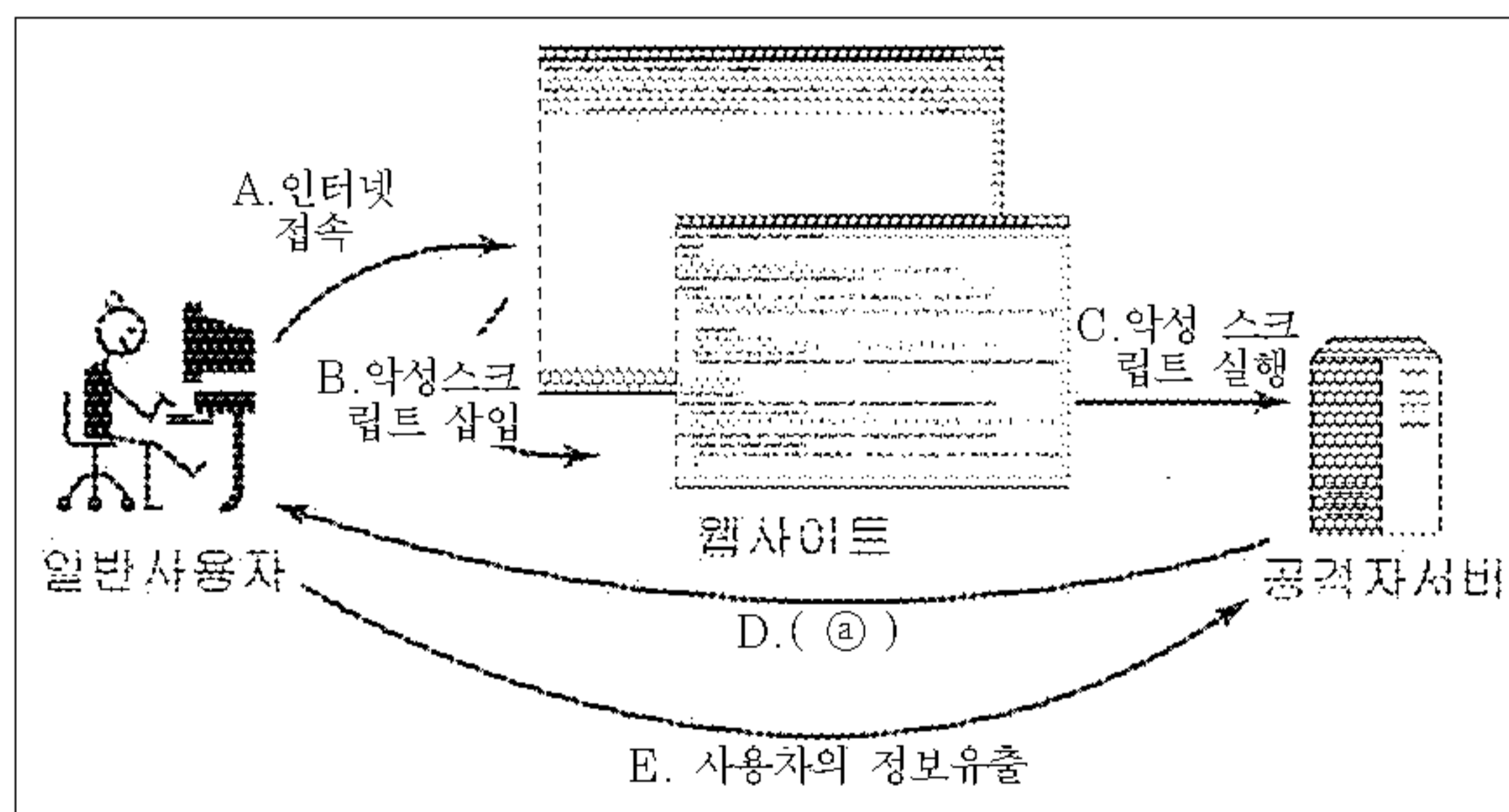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유통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자 거래에서 제3자의 명의 도용 또는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여 본인이 모르는 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본인이 위법 사실을 알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인터넷상의 위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당신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약화되겠군요.
- ② 당신 때문에 온라인 상거래시 더욱 주의해야겠군요.
- ③ 당신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군요.
- ④ 당신은 사용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군요.
- ⑤ 당신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위법 행위가 늘겠군요.

50.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그녀는 털실로 장갑을 뒀다.
- ② 나는 허리가 아파서 땀을 뒀다.
- ③ 무명 가수의 앨범이 뒤늦게 뒀다.
- ④ 외국 영화를 볼 때 한글 자막이 뒀다.
- ⑤ 그녀는 남자를 기다리다 결국 자리에서 뒀다.

51. [A]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보안 수준 낮춤
- ② 웹 페이지에 삽입
- ③ 악성 스크립트 삭제
- ④ 연결 프로그램의 실행
- ⑤ 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 문화는 소비 문화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영화를 감상하는 일은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일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대중 문화는 생산 현장과 떨어져 있는 소비의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 문화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를 통한 의미 생산, 소비의 생산성 등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문 세계에서는 소비보다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생산을 바탕으로 사회를 설명하려 했고, 서구 사회학에서 그 지위를 누려 왔던 베버적인 사회학 전통에서도 소비보다는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베버는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 원동력으로 금욕주의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일을 하되 소비를 망설이게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발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들이 생산이나 저축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을 보장해 주는 소비가 필요한 것이다. 베버의 주장은 당시 귀족 계급에 만연해 있던 소비 생활에 대해 애써 눈을 감은 격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배 계급의 소비 생활은 부르주아 계급에, 최종적으로는 도시의 노동 계급에도 파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그러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소비를 ㉢배고픔이나 추위 등의 고통을 줄이는 행위로 파악했을 뿐이다.

오늘날 소비는 사회적 권력을 나타내거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손꼽힐 만큼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만들며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신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비는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가령 우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고 운전하는 모습을 본다. 이때 자동차는 ㉣ 먼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계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목적만을 위한다면 왜 소형차가 있고 중형차가 있겠는가? 소형차와 중형차는 기계란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그 소비 주체의 지위와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다. 소비란 의미 생성이라는 문화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 물질 상품을 소비하고 이미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서태지 음악이나 설운도 음악을 소비할 때 '서태지 세대', '설운도 세대'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대중 문화의 영역은 물질 상품의 소비, 이미지 상품의 소비 모두를 포함한다. 즉,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대중 문화 영역 안으로 포함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소비는 적극적으로 ㉤대중 문화에 참가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는 의미를 생산하는 의미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 영역만이 생산을 전담하지는 않는다. 소비의 영역도 의미 생산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소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생산적 소비란 합성어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의 영역인 대중 문화는 소비 개념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인식되고 들여다볼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5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대중 문화의 소비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띤다.
- ② 베버는 자본주의의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에 주목했다.
- ③ 소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된 사회적인 현상이다.
- ④ 오늘날 소비자들은 상품의 질보다 양을 중요시 여긴다.
- ⑤ 소비의 대중화는 지배층의 문화적 우월성을 사라지게 했다.

53.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중 문화는 대중에게 끊임없이 소비가 '미덕'이며 '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소비를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을 통해 대중들은 점점 맹목적 소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비판적 사고를 상실한 채 물신주의에 빠지고 만다.

- ① 소비가 가져올 계층 간의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
- ② 소비가 창출하는 대중 문화적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
- ③ 소비를 통한 의미의 재생산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 ④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대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⑤ 소비가 대중에게 끼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54.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말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X세대, Y세대, W세대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PDG(포스트 디지털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디지털이 몇몇 ㉡기성 세대에게는 '퇴지털'로 인식되고 있지만, PDG는 온갖 종류의 ㉢첨단 디지털 기기가 필수품이 되었다. 이들에게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MP3플레이어는 생활필수품이고, PDA나 디지털 캠코더 등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며, 현재 대부분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세대로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신세대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 ① ㉠은 동일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군.
- ② ㉡는 생산에 관심이 많은 편이군.
- ③ ㉢는 이미지 상품에 해당하는군.
- ④ ㉣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군.
- ⑤ ㉤는 소비자의 정체성을 이용하고 있군.

55. ㉠~㉥ 중,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 삶의 무대요 안식처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유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인간과 자연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였다. 이는 자연이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유교는 자연을 인간의 부모로 생각하고 인간은 자연의 자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근원을 천(天)에 두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하늘이 인간에게 덕(德)을 낳아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과 인간에 내재한 덕이 하늘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이는 "사람이란 천지의 이(理)를 부여받아 성(性)을 삼고, 천지의 기(氣)를 나누어 형(形)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 존재를 이기론(理氣論)으로 설명한 것이다. 인간은 천지의 소산자(所産者)이며 이 인간 생성의 모태는 자연이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천지를 인간의 모범 혹은 완전자(完全者)로 이해하였다.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주역』에 의하면 성인(聖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 자이며, 해와 달과 함께 그 밝음을 합한 자이며, 사시(四時)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한 자이다. 이에 대하여 이이는 천지란 성인의 준칙이요 성인이란 중인의 준칙이라 하여 천지를 성인의 표준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성인의 덕은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되므로 신묘하여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천지는 인간의 모범으로 ㉢일컬어졌고, 인간은 그 천지의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는 성(誠)은 하늘의 도(道)요, 성(誠) 되 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였다. 즉 참된 것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며, 그 진실한 ㉣자연의 법칙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교는 인간 삶의 도리를 자연의 법칙에서 찾았고, 자연의 질서에 맞는 인간의 도리를 이상으로 여겼다.

이렇게 볼 때,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알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유기적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유교는 자존과 공존의 자연관을 말하였다. 만물은 저마다 자기 생을 ㉠꾸려 나간다. 즉 인간은 인간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 해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로 보면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생태계의 질서를 살펴보면 먹고 먹히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만물의 도는 함께 운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자존과 공존의 질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서 하나의 위대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나도 살고 너도 살지만, 서로 해치지 않는 조화의 질서가 바로 유교의 자연관인 것이다.

56. 위 글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미나의 안내장에 들어갈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교와 현대 철학
- 환경 파괴 문제에 관하여
- ②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
- 자연이 보여준 놀라운 복원력
- ③ 유교에서 바라본 자연관
-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찾아서
- ④ 유교의 현대적인 의미
- 자연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
- ⑤ 유교에서 바라본 현대 문명
- 자존과 공존의 문명을 그리며

57. ㉠, ㉡에 관련된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① 이(理) | 성(誠) |
| ② 인간 생성의 모태 | 천지의 소산자 |
| ③ 중인의 준칙 | 성인의 준칙 |
| ④ 도리 | 참된 것 |
| ⑤ 수단 | 목적 |

58. ㉢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 ①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山(산) 절로 水(수)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中(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② 뭇버들 가지 것거 보내노라 임의손대
즈시논 窓(창) 밧기 심어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③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호엿판대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논고.
더 燭(촉)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 ④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 그르혜 게는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⑤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흐다.
中天(중천)에 떠 이셔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티야 光明(광명)호 날빛출 짜라가며 덩느니.

59.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나눈 학생들의 대화이다. 위 글의 논지를 고려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숙 : 오늘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인간 삶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

희진 : 맞아, 오늘날 대부분의 개발은 그 바탕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어. 그런 면에서 이 글은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 ㉡

혁재 : 그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 글의 관점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지. ㉢

명진 :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통적인 유교의 자연관이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군. ㉣

승현 : 맞아.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늘 새롭게 재창조해 왔듯이 우리 앞에 놓인 현대 문명의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

- ① ㉠ ② ㉡ ③ ㉢ ④ ㉣ ⑤ ㉤

60.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연유(緣由)한
- ② ㉡ : 통용(通用)되었고
- ③ ㉢ : 이해(理解)하고
- ④ ㉣ : 영위(營爲)해
- ⑤ ㉤ : 모순(矛盾)되지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